

안 그래도 팍팍한데...소주·맥주값 또 오른다니...

4월부터 맥주 세금 인상에 출고가 인상 불가피...식당가 소주·맥주 병당 6000원대까지 오를 듯

“안 그래도 팍팍한데, 서민들 애환 달래주던 소주, 맥주 가격이 또 오른다니요.”

지난해 일제히 올랐던 서민 술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재료와 부자재 가격, 물류비, 인건비 등이 계속 오르는 데다, 주세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소주와 맥주의 출고 가격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오르면 식당이나 주점에서 파는 술값은 더 큰 폭으로 인상된다는 점에서 소주 1병이 6000원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주류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지난해보다 1당 30.5원 오르면서 885.7원이 된다. 작년 1당 20.8원 오른 것에 비해 세금 인상 폭이 10월 가까이 더 컸다.

맥주의 세금이 오르게 되면 주류회사의 출고가가 역시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원

자재 가격과 물류비, 전기료 등 역시 계속해 오르고 있어 맥주의 출고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소주는 주세가 오르지 않았지만, 최근 원재료 등 제조 원가 인상에 출고가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소주는 주정(에탄올)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만드는데, 10개 주정회사가 공급하는 주정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판매는 작년에 10년 만에 주정값을 7.8% 올렸다.

무엇보다 주정 원재료인 타피오카 가격과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정회사가 경년난을 면치 못했다. 이 때문에 주정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제빙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은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오르는 등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주류 업계의 소주 출고가 인상 요인이 다분한 상황이다.

소주 출고가가 80~90원만 올라도 식당 등에서

500원, 1000원이 더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주류업체들은 지난해 이미 소주와 맥주 출고가를 3~6년 만에 일제히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서민 술의 가격을 올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 주류 업체는 수년간 쌓여왔던 인상 요인을 버티다 못해 한번에 몰아 가격에 반영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정서상 소주 가격을 올리는 것에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원재료 가격이 워낙 올라 출고가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출고 인상 당시 소주 1병의 출고가는 85원이 올랐으나,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파는 소매 가격은 100~150원이 올랐었다. 무엇보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는 500원에서 1000원이 오르기도 했다.

현재 광주지역 식당가에서 판매되는 소주의 가격

은 4000원 대로, 일부 주요 상권에서는 이미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주와 맥주 출고가가 오를 경우 1병에 5000원은 평균 가격으로, 6000원에 파는 식당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점 역시 원재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커지면서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음식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음식값보다 주류 가격 인상이 비교적 수월해서다.

광주의 한 음식점 사장은 “원재료 부담이 늘었지만 음식값을 올리면 그나마 소비체제로 줄어드는 손님이 더 끊길 수 있다”며 “주류 출고가 오르면 다른 원가 부담까지 반영해 술값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파는 우리도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외식산업연구원이 일반음식점 외식업주 130명을 조사한 결과 55.4%가 소주 출고가 인상에 따라 소주 판매가격을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이미 올린 업주들은 병당 500~1000원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고용부 내달 2~3일 서울에서 삼성·현대차 등 100여곳 참가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2~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00여개사가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별 채용관에는 현대차, CJ제일제당, LS전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센트럴바이오, 온세미컨터테크코리아, 클루쿠스 등이 참여해 인재 채용에 나선다.

채용설명회관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CJ제일제당, SK이노베이션 등이 참여해 올해 채용 계획과 기업의 인재상 등을 설명한다.

정보기술(네이버), 항공(티웨이항공) 등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업종의 재직자와 청년 구직자 간 상담 자리도 마련된다.

채용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과 세부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www.koreajobfai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병일(오른쪽) 광주은행장이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전달한 뒤 이충호 전남경찰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전남경찰청에 사회적 약자 성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오른쪽)은 지난 16일 전남경찰청을 찾아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금 전달식에는 고 은행장과 이충호 전남경찰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한 성금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남 지역 범죄 피해자들의 생계비 및 의료비, 심리상담, 법률 비용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침으로써 지역 곳곳에 나눔 문화를 전파하며 지역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

남경찰청에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성금으로 6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지난달에는 광주경찰청·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맞춤형 지원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경유·휘발유값 제자리 찾을까...가격차 6원대로 줄어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까. 최근 경유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두 유종 간 가격 차이가 10원 이하로 좁혀졌다.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재역전할 가능성도 커졌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1당 1567.63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 1566.30원보다 1.33원 오른 것이다.

반면 경유 가격은 1당 1573.98원으로 일주일 전 1597.03원에 비해 23.05원이 내렸다. 휘발유 가격은 소폭 오르고, 경유 가격은 하락

하면서 둘의 가격 차이는 6.35원에 불과하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은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한때 200원을 뛰어 넘었던 가격 차이가 크게 줄었다.

가격 차가 좁혀진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37%로 유지됐다.

또 유럽의 난방용 발전 수요가 줄면서 국제 경유 가격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가격 역전 현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돈 잔치’ 은행들 복리후생비만 538만원

5대 은행 2021년 점심값·의료비 지원 전년비 9.1% 늘려

주요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 늘어난 이익을 기반으로 점심값 지급액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 한도를 늘리는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개선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 이자 수익으로 손쉽게 돈을 벌면서, 늘어난 이익을 공익에 환원하기보다 내부 임직원들의 상여금이나 복지를 늘리는데 주력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복리후생비 지급 규모는 지난 2021년 4036억원으로 전년(3699억원) 대비 9.1% 증가했다.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 역시 2020년 487만원에서 2021년 538만원으로 51만원 늘었다.

5대 은행은 이미 자녀 학자금 지원, 휴가 숙박 지원, 가족 의료·건강지원비 혜택 등 임직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5대 은행은 올해에도 2022년 임단협을 통해 복리후생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신한은행은 종식대를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9600원으로 높였다. 국민은행은 장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해 톨게이트 비용을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1년 임단협 당시 부모님 의료비 지원금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다. NH농협은행도 2021년 임단협에서 만 35세 배우자 검진을 격년에서 매년으로 늘렸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주요 은행의 3~4배 수준이다.

인터넷은행 3사의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은 2021년 1823만원으로 2020년(토스뱅크 제외) 1493만원보다 330만원 늘었다.

2021년 기준 카카오뱅크가 1인당 22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스뱅크(1667만원), 케이뱅크(1520만원) 순이었다. /연합뉴스

‘일본 광융합 무역촉진단’ 파견...550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

광산업진흥회, 국내 8개 기업 참여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일본 광융합 무역촉진단’ 파견을 추진해 550만 달러의 수출계약 체결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진흥회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지역으로 ‘일본 광융합 무역촉진단’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국내 광융합산업기업 8개사의 제품 스마트팩 환경제어시스템, LED조명, 다파장 LED 광원 및 광센서, 플렉시블 투명디스플레이 모듈, 비상방재전원시스템(BPS), 광통신(광트랜시버, 커넥터), 무선충전기 등 국내 광융합산업의 신기술 및 우수제품 홍보 등 개척활동을 벌였다.

또 현지 일본바이어 34명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 광융합산업 제품의 관심을 이끌어내 40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 및 6개사 11건 55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현지 광융합산업관련 기업의 제품 생산현장 및 설치현장 등을 방문 국내기업과 일본기업간 신규프로젝트 발굴 및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의 자리도 마련했다.

한편 진흥회는 매년 8월 서울에서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11월



국내 광산업기업인 ㈜코마테크가 일본 광융합 무역촉진단 파견을 통해 현지기업을 방문하고 있다.

광주에서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에서도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 무역촉진단 외 4월 필리핀, 베트남 무역촉진단을 계획해 아시아 국내 광융합산업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철동 진흥회장은 “국내 광융합산업기업 신기

술을 접목한 우수제품들이 아시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전시회 공동관 구성 및 무역촉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광융합산업 기술지원법에 따른 전담기관으로서 국제협력 및 해외판로 개척 등 국내 광융합산업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앞장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하세요

국토부, 오늘~내달 17일

정부가 지입제 피해 신고를 접수 받는 물류신고센터를 만들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nlic.go.kr/nlic/logis112.action)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본인인증 후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logis112@koila.or.kr)로 접수할 수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면 된다.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이나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공개가 필요할 수 있고, 비공개 시 피해 사례에 대한 조치가 제한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운송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지입전문회사)가 보유한 화물차를 점차 줄여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입전문 회사에 소속된 화물차 기사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그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온 지입차량은 실 소유자인 화물차 기사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에 동의하는 것을 명목으로 받는 ‘도장값’, 차량 명의 이전 대가, 과도한 지입료 인상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도 감차 조치를 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로또복권 (제 105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4	7	12	14	22	33	31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 일치					2,362,815,205	11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 일치					47,085,086	92
3	5개 숫자 일치					1,269,215	3,413
4	4개 숫자 일치					50,000	165,590
5	3개 숫자 일치					5,000	2,662,001